

출제보도 및 학습자료

2026학년도 SMAKO 모의고사 7회

□ 국어 영역

1. 출제의 기본 방향

텍스트에 담긴 심도 있는 정보들에 대한 수험생의 반응을 정보의 이해와 재구성, 추론과 비판 및 적용 능력의 측면에서 평가하는 데 출제의 기본 방향을 두었다. 이때 가능한 한 다양한 학문 영역에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는 통합적 출제를 지향했다. 또한 제시문 수준 및 문항 설계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도록 하였다.

- 내용 및 표현에서 교육적 가치가 높은 텍스트, 수준 높은 교양과 통찰이 담긴 글을 제시문으로 활용한다.
- 정보의 위계와 조직 방식들을 고려하여 텍스트에 담긴 정보를 이해하고 재조직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 텍스트에 담긴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거나 이를 새로운 문제 상황에 적용하여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2. 출제 범위

국어 영역에서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엄선한 텍스트를 바탕으로 제시문을 구성한 후, 이 제시문에 담긴 고차적·입체적 정보들을 이해하는 능력, 그 정보들을 재구성하고 종합하는 능력,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거나 그 추론을 새

로운 문제 상황에 적용하여 평가·비판하는 능력 등을 측정한다.

이번 시험의 출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 표준화된 모델들을 기반으로 문항 세트를 설계함으로써 제시문에 사용된 개념이나 범주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여러 학문 분야의 최신 이론이나 담론을 중심으로 제시문을 작성하되, 제시문의 정보 위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 상황에 적용할 만한 독해력을 갖추었는지 측정하는 문항들을 출제한다.
- 특정 전공, 특히 법학 전공의 배경적 지식이 없어도 제시문에 주어진 정보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제시문과 문항을 구성한다.

3. 제시문 및 문항

출제 목표를 달성하려면 완성도 높은 제시문으로 독해력을 측정해야 한다. 논의의 완결성은 물론 표현의 가독성을 함께 갖춘 텍스트를 제시하되, 주어진 수험 시간 내에 처리할 만한 정보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기본 조건들을 고려하면서도 학문적·교양적 가치가 담긴 주제나 논의를 담은 제시문들을 개발하였다.

각 제시문에 따른 문항들은 ‘주제, 구조, 관점 파악’,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정보의 추론과 해석’, ‘정보의 평가와 적용’ 등 여러 독해 능력을 균형 있게 평가하도록 설계하였다. 이와 함께 제시문과 <보기>를 연결하는 문항을 다수 출제하여 비판 및 추론, 적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번 시험의 내용 영역은 ‘인문’, ‘문학’, ‘규범’, ‘과학기술’의 4개 영역이며, 문항은 각 세트당 3문항, 총 5세트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내용 영역별로 제시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와 설계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인문> 분야에서는 철학 관련 주제로 가능세계의 존재론적 위상에 대한 입장별 차이를 소개하는 제시문과, 과학철학 관련 주제로 '신의 레시피'로서 설명에 접근하는 시도를 소개하는 제시문이 주어졌다. 첫 번째 제시문은 하나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여러 입장을 등장시키는 것만으로 문항 설계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으레 다양한 입장이 소개될 때, 그 지도를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루이스가 양상실재론자이므로 다른 진술이 제시되지 않는 한 양상실재론의 견해와 루이스의 견해는 서로 일치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영원주의는 환원주의를 토대로 삼으므로 영원주의와 환원주의는 서로 견해가 상당 부분에서 일치할 것이다. 두 번째 제시문에서는 첫 번째 제시문과 달리 한 개념에 연관된 내용을, 그러니까 '정의'를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했다. 긍정 레시피와 달리, 15번 문항에서 부정 레시피를 정식화할 때 신적 개입이 고려된다. <보기>의 사례는 노드 간 묶음에 대해 따져볼 수 있는지를 묻고 있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7문단에서 제시된다. c (OR) y 의 부정은 $\sim c$ (AND) $\sim y$ 이다. 이 정보만으로 정답은 ③임을 알 수 있다.

<문학> 분야에서는 김초엽의 SF 소설에 대한 평론 제시문이 주어졌다. 제시문에서 난잡한 용어나 설명을 지양하는 방향성은 문학 평론 분야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일상언어적 정보처리를 중점으로 문항을 설계하였다. 특히 장황한 설명, 긴 호흡의 선택지에서 허무하게도 틀린 곳은 한 군데 뿐이다. 가령 『인지 공간』 속 이브는 허약함으로 인해 소설 내 사회가 보유한 정상성 기준으로부터 소외된 존재이다. 즉, 이브는 애초에 정상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4번의 ④은 적절하지 않은 추론이다. 또한 6번 문항의 경우 <보기>의 길이가 상당하지만 JUST 장식이다. 예를 들어 6번의 ②은 <보기>만으로 그 추론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의 영상을 보고 감명을 받은 주연, 정상에서 추락한 무용수라는 정보를 보라. 적어도 작중 속 인물인 '나'는 무용

수였을 당시에 실력이 부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규범> 분야에서는 생체인식정보의 의미와 그 규제의 관한 담론을 소개하는 제시문이 주어졌다. 전반적으로 무난한 난이도로 출제하였다. 생체정보와 생체인식정보는 제시문 속에서 비슷하지만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생체인식정보는 생체정보에서도 식별을 목표로 하여 처리된 정보이므로 생체정보의 하위 범주이다. 다시 말해 생체인식정보인 것은 언제나 생체정보인 것이므로 7번의 ②는 적절하지 않은 추론이다. 또한 ㉠의 이유를 묻는 8번도 그 뒷 문장으로부터 근거를 직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게끔 쉽게 설계하였다. ㉠에서 특징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민감정보가 된다고 하였다. 이말인즉슨, 그 법에 ‘특징정보의 정의를 충족하는 무언가는 민감정보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8번에서 적절한 이유는 ③이 된다.

<과학> 분야에서는 기술 관련 주제로 SLR과 ASRS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소개하는 제시문이 주어졌다. 4문단으로 이루어진 짧은 길이의 지문, 그러나 정보량은 상당할지도 모른다. 교묘하게도, 레이저 추적 시스템(SLR)과 항공 감시 시스템(ASRS)는 서로 다른 체계이다. 이는 10번 자체의 설계 포인트가 되었다. 레이저 차단 신호의 발생, 낮은 유지비용 등은 SLR이 아닌 ASRS의 특징이다. 한편 우주물체를 표적으로 레이저를 쏠 때 그 진행 방향에 있는 비행체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 문단의 ‘잔차’, “잔차가 문턱을 벗어나면 레이저 차단 신호를 발생시킨다.”에 담긴 함의를 추론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컨대 잔차는 서로 다른 지향 위치의 불일치 정도를 나타낸다. 그렇다면 잔차가 문턱 값보다 작다는 것은 지향 위치가 허용 범위 내에서 일치한다는 것이고, 이는 레이더가 레이저를 잘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4. 난이도 및 총평

Smako 7회 국어 영역 시험에서는 개념의 기본적인 관계와 범주를 본질로 하되, 수험생이 난해함을 느낄 수 있게 문항을 설계하였다. 제시문 속 표현의 난잡함을 줄이는 대신 선택지에서 승부가 나도록 의도하였다. 전반적으로 이전 회차인 6회차에 비해 쉬울 것으로 예상된다.

5. 출제 시 유의점

이번 시험에서 문항 출제 시의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 사설 학원을 비롯한 다양한 출처의 문제들을 풀어본 경험, 특히 기술적인 방법으로 문제 풀이에 접근하는 태도를 통해서만은 해결하기 힘든 문항을 설계한다.
- 특정 전공에 따른 유·불리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한 배경지식 유무 자체가 문제 풀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문항을 설계한다. 다만 인문·철학 분야는 그 영향이 다른 분야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있다.
- 지나치게 어려운 제시문과 문항 설계로 수험생의 혼란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변별력을 갖춘 문항과 답지를 설계한다.